

땀과 노력이 깃든 동백군락지

위미리의 동백나무숲에는 백여 년 전 처음 동백나무를 심은 한 할머니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그녀가 뿌린 하나의 씨앗은 오늘날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는 동백나무숲이 되어 우리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다.



위미중앙로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2576-3 ~ 남원을 위미리 892-7(약 3.2km)

위미항구로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3192-4 ~ 남원을 위미리 산62(약 5.7km)

위미해안로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3164-5 ~ 남원을 위미리 3026-3(약 1.3km)

위미대화로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3112-8 ~ 남원을 위미리 3000-3(약 0.3km)

위미서성로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4145-4 ~ 남원을 위미리 4171-7(약 0.2km)

위미대원하로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1950-12 ~ 남원을 위미리 1866-3(약 0.6km)

위미대성로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1952-6 ~ 남원을 위미리 491-13(약 1.9km)

자배오름로 | 서귀포시 남원을 한남리 480-31 ~ 남원을 위미리 3856(약 3.8km)

위미중앙로 | 현맹춘 할머니와 동백나무



동백나무 군락

위미리의 중앙에 위치한 도로인 **위미중앙로**는 중산간동로에서 시작해 위미중학교와 위미2리교차로를 지나 바닷가 마을으로 이어진다. 위미는 예전에 마을 모양이 소의 꼬리와 비슷하다고 우미(牛尾)로 불려왔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마을의 풍속과 인심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위미리(爲美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위미중앙로가 끝나는 부근에서 갈라지는 위미중앙로300번길을 따라 동쪽으로 가다보면 동백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을 만난다. 130여 년 된 크고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다.

이 동백나무들에는 이 마을에 살았던 현맹춘 할머니의 땀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 할머니는 17세에 위미로 시집을 온 후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황무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바다와 멀지 않은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닷바람을 막는 방풍림이 필요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한라산에서 동백나무 씨앗을 따다가 밭 주위 울타리에 뿌렸다. 그리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면서 정성껏 가꿨다. 10년 정도가 지나자 동백나무는 어느 정도 방풍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동백나무들은 백 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다. 현재 이곳에는 500그루가 넘는 동백나무가 있다. 겨울이 되면 이곳은 붉은 동백꽃으로 가득하다. 할머니의 정성이 오늘날 마을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낸 것이다.

위미항구로 | 위미항과 조배머들코지

위미교차로에서 남쪽 방향으로 쪽 뻗어나간 **위미항구로**를 따라가면 서귀포시의 작고 아름다운 위미항을 만날 수 있다. 예전에는 마을의 앞에 있는 포구라고 해서 앞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수심이 깊어서 큰 배들도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정기여객선도 이곳을 들러 사람들을 실어날랐다고 한다. 이렇게 여객선이 드나들자 위미항 주변에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여관과 상점들이 들어서기도 했다고 전한다.

위미리의 바닷가에는 조배머들코지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이곳은 기암괴석들이 솟아 있어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이 한라산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어서 마을에 큰 인물이 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런데 마을의 유지가 일제강점기 때 조배머들코지의 바위를 없애야 집안에 탈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인의 말을 듣고 그 돌을 폭파해 버렸다. 바위 밑에는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후 조배머들코지는 위미항이 개발되면서 예전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최근 복원을 통해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서 마을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위미항

위미해안로 | 넙빌레

위미항의 서쪽으로 이어지는 **위미해안로**는 위미리의 해안을 둘러보는 해안도로이다. 이 길 인근에는 넙빌레라 불리는 용천수가 있다. 넓은 바위에서 솟아나는 이 물은 매우 깨끗해서 여름에 사람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고, 식수로도 이용되었다고 전한다. 위미리에는 예전에 황하소주공장이 있었는데 고망물의 물을 이용해 술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망물은 수질이 좋기로 유명한 물이었다. 그래서 이 물로 만든 소주도 제주를 물론 부산과 목포 등지에서도 인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받을 때가 되면 고망물이 아닌 넙빌레물을 떠다가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넙빌레물이 고망물보다 더 물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넙빌레물도 고망물이라고 하면 고망물이다”라는 농담도 전해온다. 이 소주공장의 주인이었던 황순하는 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나서 오현학원을 세워 제주의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기여를 했다.



넙빌레 용천수

위미대화로/ 위미서성로 | 대화동과 서성동

위미대화로는 대화동의 지명을 딴 이름이다. 위미항 서쪽에 위치한 대화동은 가운데썰

이라 불리던 곳이다. 이곳은 위미리에서 일찍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안 김씨가 가장 먼저 정착을 했다고 전한다. 이 집안은 아주 부자여서 집터가 3,000평이나 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을 큰택이라 불렀다. 김씨 집안의 경작지는 서귀포의 하논에까지 있어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옮기는 행렬이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한다.

위미대화로의 서쪽에 나 있는 **위미서성로**는 서성동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셋병터라고 부르던 곳이다. 원래 이곳은 풀과 나무가 우거진 벌판이었다고 한다. 150여 년 전쯤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생겨났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지금의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위미대원하로/위미대성로 | 대원동과 대성동

위미대원하로는 일주동로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이어져 위미향 서쪽의 대원동에 접하는 길이다. 대원동(大原洞)은 크고 넓다는 의미라고 한다. 예전에는 관아에서 관리하던 밭이 있던 관전, 가장 아래에 있는 알동네 등 여러 마을로 나뉘져 있었는데 새마을운동 이후에 웃마을을 대원상동으로 아랫마을을 대원하동으로 나뉘 구역을 정리했다고 한다.

위미대원하로 북쪽으로 나 있는 **위미대성로**는 일주동로에서 시작해 대성동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이 마을에는 고좌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위미에 큰 집을 짓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살고 있던 고좌수가 있었다. 힘도 세고, 욕심도 많았던 그의 위세가 어찌나 높은지 마을 사람들은 꿈쩍을 못했다. 그래서 정의현에는 고좌수의 집에는 없는 것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은 현감이 그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 집에 탕건 100개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자 하루만에 하인들을 시켜 마을의 탕건들을 모두 수거해서 보여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정의현청에 다녀오다가 한남 지경의 사령골이라는 곳에서 얼어죽고 말았다. 육지에서 내려온 지관은 고좌수의 부인에게 대성동에 있는 명당자리를 알려주며 관을 뒤집어서 묻고 3년 안에는 절대 무덤을 열어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 후로 고좌수의 두 아들은 아주 힘이 센 장사가 되었다. 그 중 둘째 아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러자 고좌수를 묻을 때 유일하게 함께 했던 늙은 하인이 아버지를 거꾸로 묻은 주제에 뭘 잘났다고 따졌다. 둘째 아들은 당장에 고좌수의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을 열었는데 그 순간 무덤 안에 있던 황새가 날아가버렸다. 3년이 되기 전에 무덤을 여는 바람에 명당의 기운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좌수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패가망

신했다고 전한다.

자배오름로 | 자배오름

위미리 북쪽의 **자배오름로**는 위미리의 유일한 오름인 자배오름을 지나는 길이다. 자배오름은 제주에서 자배낭이라고 불리는 구실잣밤나무가 많다고 해서 불린 이름이다. 자배오름의 남쪽에 고좌수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오름은 망오름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이곳에 봉수대가 설치되면서 주변을 감시하는 뜻에서 불린 이름일 것이다. 편하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자배오름의 탐방로에는 선사시대 무덤인 고인돌로 보이는 커다란 돌도 만날 수 있다. 날씨가 맑으면 자배오름 정상에서 해가 뜨는 모습이 잘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첫 해의 기운을 맞이한다.